

창원 의회 소식

제22호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



창원의회소식

2016. 12. (제22호)

발 행 인 창원시의회의장

발 행 처 창원시의회 사무국 055)225-5331~5

주 소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표지사진 창원시의회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창원시의회

CONTENTS / 목차

04 개회사

06 주요안건 처리현황

- 제60회 임시회(2016. 9. 1. ~ 9. 9)
- 제61회 임시회(2016. 10. 12. ~ 10. 17)
- 제62회 임시회(2016. 11. 8. ~ 11. 11)

13 예산심의 활동

16 시정에관한질문

- 제60회 임시회(김헌일 의원 등 2명)

17 5분 자유발언

- 제60회 임시회(김삼모 의원 등 8명)
- 제61회 임시회(김우돌 의원 등 3명)
- 제62회 임시회(주철우 의원 등 6명)

22 건의안 및 결의안

- 마산자유무역지역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 건의(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농 · 수 · 축산물 제외 촉구 건의(안)
- 북한의 제5차 핵 실험 규탄 결의(안)

25 위원회 활동

30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36 언론 보도자료

62 의원 칼럼



●개회사●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본회의



의장 김 하 용

존경하는 10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최고 기록을 경신한 무더위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9월에, 제6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두 달여 기간동안 폭염경보가 연일 울리는 가운데, 2016 을지연습 실시 및 입법청원 출정식 등 광역시 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폐회 중 지역민생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39사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가를 반납하면서 의욕적인 활동을 해주신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아낌없는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9월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으며, 그 동안 농민들이 땀흘린 노력을 수확하는 결실의 달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속에서 2016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조례 안건 등을 상정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안건의 의결과 함께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시정 질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 하시는 의원께서는 내실있고 성실한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바람직한 시정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창원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1.

창원시의회 의장 김 하 용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6. 9. 1. ~ 9. 9.) - 9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발 의 자 : 김태웅 의원 등 11명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김석규, 김태웅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창원시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창원시정연구원의 수행 사업 대상범위에 창원시의회를 추가하여 창원시정연구원과 시의회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보조금 신청 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추가서류 제출 삭제 등 법제처 주관 자율정비 대상의 일제정비 및 교육경비 지원체계 개선으로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유보다 과도하게 규정한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및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창원시장의 책임 면제 규정 삭제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 협의회는 상권관리기구(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등록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관련 조항 삭제 및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이행한 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변경된 소득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5조의2 제9호에 의거 “푸드트럭” 으로 통칭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장소와 첨부해야할 주요 서류를 명시하여 체계적·효율적 관리에 기여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자전거등록 시민과 누비자 이용 회원 등으로 한정된 자전거보험 가입대상을 시민 및 누비자 이용자로 확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함.

■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 추진 관련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분야 숨은 건축규제 일제 정비 대상을 반영하고, 2016년 법제처 주관 자율정비 대상을 정비하며, 건축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 2007년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 중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인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의 기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며,
 - 금회 변경계획은 사업시행예정시기를 변경고시로부터 4년 이내로 연장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계획 세대수 증가 및 공공기반시설 조정 등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 성산구 신촌동 양곡아파트는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신촌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건령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임.
 - 이러한 주거지역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정비구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기준 제시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전 창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제6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6. 10. 12. ~ 10. 17.) - 6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박춘덕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개선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배여진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기능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체계화된 지원 규정이 없음.
-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성산스포츠센터, 용원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관련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명칭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 시행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시행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자가 관내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입주대상자의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

- 발 의 자 : 정쌍학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핵폐기 요구를 무시하고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단호한 대책을 수립하고,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 진해군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의거 창원시 진해군 군사기지 일원내 시설물 전략화에 따른 계류부두 건설 등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받고 자 함.

제6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6. 11. 8. ~ 11. 11.) - 4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의장에게 보고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구성개요

- 일 시 : 2016.11.8.(화)(제6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 위 원 수 : 9명
- 안 건 명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명단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노종래	김우돌	김영미, 김재철, 박옥순, 박춘덕, 배여진, 이천수, 황일두

■ 위원회 활동 내역

- 제1차 회의 (2016.11. 8.) :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 제2차 회의 (2016.11.10.)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 계수조정 및 의결

■ 심사결과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증 감 륜
계	2,860,077,003	2,756,212,375	103,864,628	3.77%
일반회계	2,146,477,701	2,098,249,090	48,228,611	2.30%
특별회계	713,599,302	657,963,285	55,636,017	8.46%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계	2,860,077,003	100%	2,756,212,375	100%	103,864,628	3.77%
일반회계	2,146,477,701	75.05%	2,098,249,090	76.13%	48,228,611	2.30%
특별회계	713,599,302	24.95%	657,963,285	23.87%	55,636,017	8.46%
공기업특별회계	287,427,778	10.05%	284,883,278	10.34%	2,544,500	0.89%
기타특별회계	426,171,524	14.90%	373,080,007	13.54%	53,091,517	14.23%

■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860,077,003	100%	2,756,212,375	100%	103,864,628	3.77%
지방세수입	663,914,437	23.21%	660,802,000	23.98%	3,112,437	0.47%
세외수입	525,593,132	18.38%	462,638,518	16.79%	62,954,614	13.61%
경상적세외수입	465,491,838	16.28%	408,645,749	14.83%	56,846,089	13.91%
임시적세외수입	60,101,294	2.10%	53,992,769	1.96%	6,108,525	11.31%
지방교부세	342,009,000	11.96%	322,545,000	11.70%	19,464,000	6.03%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71,625,000	6.00%	171,625,000	6.23%	0	0.00%
보조금	704,875,324	24.65%	692,452,718	25.12%	12,422,606	1.79%
국고보조금등	539,157,012	18.85%	533,580,314	19.36%	5,576,698	1.05%
시·도비보조금등	165,718,312	5.79%	158,872,404	5.76%	6,845,908	4.31%
지방채	40,000,000	1.40%	40,000,000	1.45%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2,060,110	14.41%	406,149,139	14.74%	5,910,971	1.46%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860,077,003	100%	2,756,212,375	100%	103,864,628	3.77%
일반공공행정	165,767,318	5.80%	160,441,182	5.82%	5,326,136	3.32%
공공질서및안전	37,959,454	1.33%	34,625,715	1.26%	3,333,739	9.63%
교 육	45,986,443	1.61%	44,483,183	1.61%	1,503,260	3.38%
문화및관광	304,975,826	10.66%	295,313,898	10.71%	9,661,928	3.27%
환경보호	304,885,881	10.66%	305,045,218	11.07%	△159,337	△0.05%
사회복지	752,162,780	26.30%	739,138,611	26.82%	13,024,169	1.76%
보 건	41,906,180	1.47%	41,729,302	1.51%	176,878	0.42%
농림해양수산	119,765,154	4.19%	111,384,500	4.04%	8,380,654	7.52%
산업 · 중소기업	110,234,170	3.85%	104,716,175	3.80%	5,517,995	5.27%
수송및교통	290,987,298	10.17%	285,803,299	10.37%	5,183,999	1.81%
국토및지역개발	247,903,339	8.67%	193,032,511	7.00%	54,870,828	28.43%
예비비	20,968,123	0.73%	20,968,123	0.76%	0	0.00%
기 타	416,575,037	14.57%	419,530,658	15.22%	△2,955,621	△0.70%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9. 7(수) 10:00~)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노후된 석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대책은”

질문 석동주민센터 건물은 약 30년 된 건물로 노후화된 데다 협소해 직원들과 주민들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전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데 옛 진해 교육청 건물을 매입하면 주민자치센터 이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주차장 활용으로 주차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시의 입장은 어떤가?

답변 현실적으로 지가 부담 때문에 기존 주민센터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옛 진해 교육청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도교육청의 입장도 중요하다. 석동 시유지에 주차타워 건립을 계획 중이다. 석동주민센터 이전 등은 특단의 예산 대책이 필요하다. 내에 승첩비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이 민 희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진해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추진과정은”

질문 진해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이전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진해구 원포동 일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2등급으로 나왔다. 전국적으로 환경평가 2등급 부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허가를 내준 사례가 없다. 증설 중인 성산구 음식물 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은 없나?

답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으로 환경영향평가 등급 결과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부지들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성산구 음식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은 타 지역 음식물 유입을 반대해 진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이전 부지를 잘 선정해 건립해야 한다.

:: 5분 자유발언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9. 1(목))



김삼모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

저출산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창원시 인구감소 추이를 보면 통합 당시 109만에서 2016년 6월 현재 106만여 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출산 가능성이 높은 25세~34세 여성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장기적 안목에 근거한 제도적이고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 내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은정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법인택시 보조금 점검하라”

법인택시에 지급한 보조금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었는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분기별로 확인,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 조례 제정이 이전이라도 브랜드 택시를 위해 장비 장착 비용을 부담한 택시운송종사원자 민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수명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진해루 앞바다 분수대 설치하자”

진해루 앞바다에 해양음악분수 설치를 제안한다.
분수를 설치할 경우 연간 100만 이상의 관람객 유치와 경제적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에 설계 용역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해 실시설계를 했으나, 예산문제로 실현 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할 경우 기회비용이 줄어든다.



공창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사림로에 문화관광거리 조성하자”

의창구 사림로 주변에 문화관광 테마거리 조성을 제안한다.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지구단위계획 정비 시 주택이나 1종 근린생활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사림로와 대학가 일대의 규제를 완화해 창원의 집, 역사민속관, 사격장 등을 연계한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자.

∴ 5분 자유발언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9. 9(금))



노 창 섭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 시내버스,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

창원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획기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지선 버스가 손님을 태우지 않고 운행한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경찰에 수사의뢰해 형사처벌도 해야 한다.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이므로 정확하게 사용되는지 감독해야 한다.



김 석 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민간 청소용역 처우 개선하라 ”

창원시 민간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편법적인 노무비 산출 개선을 촉구한다. 창원시 청소용역노동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원가 산정시 유급휴일 외에 법정공휴일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이유로 월 평균 8~9시간 적게 산정돼 있다. 이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꼭 개선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바란다.



주 철 우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 국회 표결정보시스템을 도입하자 ”

국회의 표결정보시스템을 창원시의회에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본회의장 법안과 정책 관련 표결 결과를 모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시의회가 다룬 조례, 정책적 안건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행된 조례나 정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결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낱낱이 공개하는 국회 표결정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김 재 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 다목적 공연연습장 필요하다 ”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다목적 공연연습장 건립을 촉구한다. 마산지역 문화예술단체는 해마다 공연 시 사전에 연습할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산합포구 마산음악관 옆에 비어 있는 부지를 활용해 별도의 부지매입비 없이 건축비 예산만으로 다목적 공연 연습장을 건립해 부족한 연습 공간을 해결하자.



김 우 톨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동읍에 ‘조수미 예술학교’ 건립해야”

조수미씨가 창원시 명예문화대사가 위촉되었으며, 국제적인 예술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종합예술학교는 조수미씨 부모가 태어나고 성장한 의창구 동읍에 건립되어야 한다. 동읍은 ‘다호리고분군’ 과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인 ‘주남호’ 가 있다. 이 같은 지역에 조수미 예술학교가 건립되어야 한다.



김 동 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팔룡 5일장, 복면 이전 철회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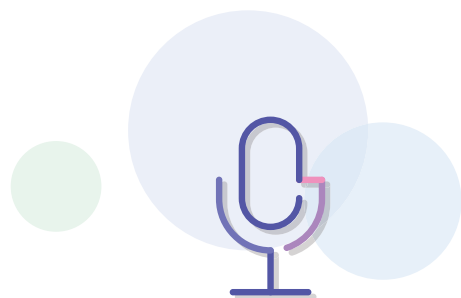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팔룡 5일장의 복면 감계지구 이전 결정은 부당하다. 5일장 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주민 설명회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감계지구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각종 법률에 용도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도시 계획 조례에 주류 등을 판매하는 식당 등을 허가 할 수 없는 곳이다.



이 옥 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앞장서야”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구매를 촉구한다. 올해 들어 6월 30일까지 시에서 발주한 관급자재 중 LED 구매액 8억 5000만원 중 지역 업체 제품 구매액은 4억원으로 약 47%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관급자재 비용이 외부로 유출됐다.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5분 자유발언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 11. 8(화))



김 삼 모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기반 조성을 촉구한다”

의회직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소신 있는 정책지원이 어렵다. 입법 및 정책 지원을 하는 데는 객관성 및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 기초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김 동 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39사 개발이익금 활용방안 재검토를”

김종영 미술관과 조각공원 조성은 반갑지만, 전시할 진품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다. 창원 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에 실제로 관련 도시계획이 해제도 되기 전에 창원시는 해제될 것을 가정해 사업자를 공모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개발이익금 활용방안 재검토를 요청한다.



주 철 우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예산서에 허위사실 기재 안해야”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예산 편성운영기준,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거 엄격한 절차에 따라 작성돼야 한다. 올바른 예산 심의를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 반드시 가내시서를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예산안을 철저히 감사해 근절대책을 수립하라.



송 순 호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학교 횡단하는 고압송전선 철거하라”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송전선로가 학교를 횡단하는 곳은 9곳이며, 창원이 내서읍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 2곳이다. 15만 4000볼트의 고압전선이 횡단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주민서명, 탄원서 제출, 기지회견, 대책위구성 등 송전탑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창원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상 인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도심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하라”

주차정책 개선방안 수립을 촉구한다. 광역시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규모에 걸맞게 도심 주택가 주차난 문제의 정책 대안과 체계를 갖춰야 함에도 전담 조직이 없으며 주차수급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파악 부족하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선제적인 주차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노 창 섭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오페수 방류 근본대책 마련하라”

북면 오페수 무단 방류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2011년부터 북면 하수처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년간 하수처리 증설 사업은 지연됐6다. 경찰조사와 감사 부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이번 사태와 같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 건의안

우리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40여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며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전용공단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한 때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발한 경제 활동에 힘입어 우리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최근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우리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출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경제 불황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외국투자기업이 하나 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계 기업들이 지역 근로자와 협의 없이 한국지사의 구조조정 혹은 철수를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 산켄(SANKEN)전기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산연은 1973년 마산자유무역지역 내에 자리 잡아 그동안 우리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지난 2월 경영악화로 생산부문 폐지를 결정하면서 생산직 전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여 오는 9월 30일까지 정리해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수개월째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연의 생산부문 폐지와 생산방식 외주화, 생산부문 근로자 전원 정리해고 예고통보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고용불안과 생계위험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노동계에서는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혜택에 비해 외국투자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경영의 어려움으로 발생한 문제는 노사가 함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고충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창원시의회에서도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로 수수방관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하고 지난 6월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에서 중재단 구성에 합의하는 등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지혜의 힘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아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 뿐 만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서로서로의 발전과 행복을 위하여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해 가고 있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산켄전기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한국산연 근로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헤아려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한국산연 근로자들의 일터 보존을 위한 정리해고 철회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창원시의회 의원들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6. 9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농·수·축산물의 제외 촉구 건의안

최근 공직자의 금품수수 문제 등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2016년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은 공직자 등의 수수(授受)가 금지된 “금품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전이나 향응 외에 한우·과일 등 농·수·축산물 역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연간 농·수·축산물 수요가 1조 8,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우리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농·수·축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하여 값싼 수입 농·수·축산물 세트가 대체재로 자리잡아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 위축을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업은 한우·과일이나 굴비·화훼 등 다양한 농·수·축산물 품목이 모두 김영란법의 금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한중 FTA 등 최근의 계속된 FTA 체결로 저가 수입산 농산물의 유입과, 쌀 등 주요 농·수·축산물의 수요 감소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농어민의 소득 기반이 상실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농수산업에 대한 보다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의는 농어업 등 1차산업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 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우리 농수산업과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이 제외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촉구 건의한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창원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이 제외되어 농어업등 1차산업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토록 건의한다.

셋째, 국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이 제외 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한다.

2016. 9. 1.

창원시의회의 의원 일동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

창원시의회는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이러한 도발행위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며,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하여 국제적 고립 심화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핵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기반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핵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창원시 의회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창원시 의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창원시 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창원시 의회는 북한 정권의 이번 핵실험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기존의 제재조치에 더하여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5. 창원시 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핵포기를 위한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6. 창원시 의회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국회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종국적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2016. 10. 12.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회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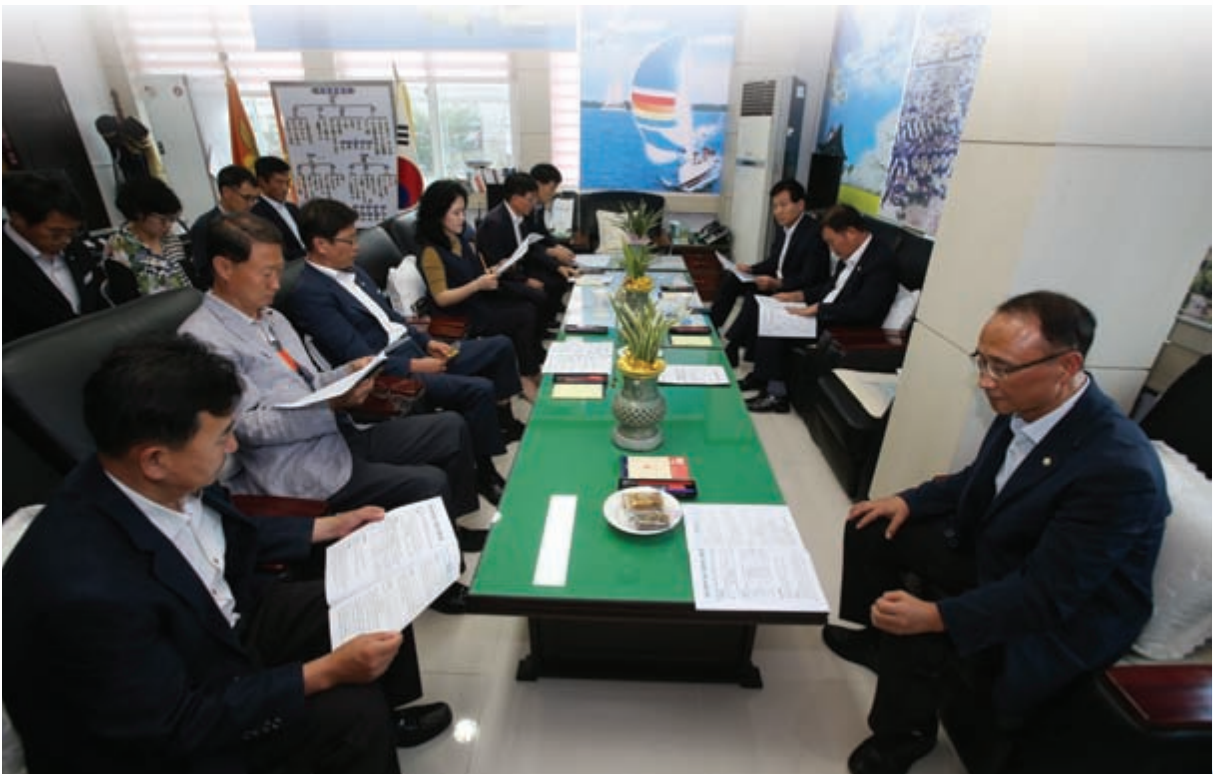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영주)는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9.1~9.9.(9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10.12~10.17.(6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11.8~11.11.(4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11.25~12.20.(26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헌일)는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이옥선)는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여 동의안,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또한,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였다.
- 9월 6일, 상인 대표자 면담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남동 대끼리 야시장을 방문하였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강호상)는 제60회 창원
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주남저수지, 로봇랜드,
해양신도시를 현장방문했으며 ▷창원재활용선별장에서
현장체험행사를 가졌다.
-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물)을 원안가결하고, ▷진해군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찬성의견을 제시했으며, ▷진해웅동복합관광레저
단지와 누비자운영센터 및 누비자중앙센터를 현장방문
하였다.
-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희철)는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채택,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부대 의견첨부 찬성의견채택 하였으며,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 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다. 또한, ▷창원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였다.▷아울러, 9월 5일 진해지역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관리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부결하였다. ▷아울러, 10월 14일 마산가고파 국화축제준비장을 방문하여 국화축제 준비상황 등을 청취하였다.
-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
- 9월20일~9월21일, 이틀간 지역내 관광 분야 현황 청취 및 축제 유료화 관련 사례연구를 위해 거제 일원 및 진주 유등축제장을 방문하여 아이디어 발굴과 문화관광인프라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9월 1일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최



9월 2일 창원광역시 승격 입법 청원 출정식



9월 6일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 방문



9월 6일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 방문



9월 6일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 방문



9월 6일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 방문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9월 8일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재활용품 선별 현장 체험



9월 9일 콜레라 관련 지역 어업 수산 경제살리기



9월 9일 콜레라 관련 지역 어업 수산 경제살리기



10월 7일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



10월 10일 진해구 도·시의원 초청 간담회



10월 11일 용원 침수 피해지역 주민과의 토론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0월 11일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



10월 12일 제6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최



10월 12일 좋은조례연구회 간담회



10월 14일 호국영령 합동 위령제



10월 15일 바르게살기 운동 한마음 다짐대회



10월 15일 진해수협 어울림 한마음 대축제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10월 21일 대한민국 다향축전 한 중 국제학술 심포지움



10월 21일 태풍 피해지역 현장 방문



10월 25일 미스어스 차이나 시의회 방문



10월 25일 제191회 경남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정례회 개최



10월 25일 제191회 경남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정례회 개최



10월 27일 좋은조례연구회 간담회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10월 28일 러시아 아쿠츠크시 사절단 의회 방문



11월 1일 2016년 창원 복지 박람회



11월 2일 ~ 4일 의정연찬회 (속초)



11월 2일 ~ 4일 의정연찬회 (속초)



11월 6일 제9회 해군과 함께 달리는 진해 마라톤 대회



11월 8일 제6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최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11월 9일 제54회 소방의 날 행사



11월 9일 창원도시건축 정책 토론회



11월 11일 의원 청탁 금지법 특별교육



11월 15일 좋은조례 연구회 비교견학



11월 22일~23일 도시발전연구회 비교견학



11월 25일 로컬푸드 연구회 간담회

창원시 의회 제60회 임시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의장 김하용)는 제60회 창원시의회의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9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창원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 서류에 관한 조례안,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농·수·축산물의 제외 촉구 건의안,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실시한다.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9월1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 9월2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시정에 대한 질문을, △9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제6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김하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연일 계속 되는 폭염 속에서 2016 을지연습, 39사 개발사업 행정 사무조사 특위활동 및 창원광역시 승격 입법 청원 준비 등 당면 사항을 위한 집행부 및 동료 의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다가오는 9월은 땀 흘린 노력을 수확하는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이라는 결실의 달로 의회 및 집행부 모두가 2016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내실 있고 성실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 해소 및 바람직한 시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과 각종 민생 및 지역현안 관련 조례안심사에 있어서도 진지한 검토로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소방본부 현장방문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현일)에서는 제60회 임시회 기간 중 최근 국내·외적으로 테러참사등의 사건사고와 관련한 우리시의 대응책에 대한 방안을 듣기 위해 창원시소방본부를 방문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화재진압 및 응급의료분야의 생명구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특수 재난에 대한 시민의 훈련운영 방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었다.

위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신속히 대응하여 맡은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통시장 현장 방문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이옥선)는 최근 영업매출이 저조함에 따라 상권 활성화 해법 찾기에 나선 전통시장에 대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지원 및 활성화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상남동 “대끼리야시장” 현장방문에 나섰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현장방문 중 창원시 관계자, 상인회 대표, 시민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께서도 이번 추석명절에 “청춘바보물”, “대끼리야시장” 등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꼭 한번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대끼리야시장은 상남동 일대 젊은 층을 끌어들이어 전통시장을 활성화 해 보자는 취지로 설립한 문화관광형 육성시장으로 2014. 12월 개장하였다. 성산구 상남시장 2층 통로 20개 점포를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해 개점 초기 다양한 먹거리·볼거리를 찾는 손님들로 활기가 넘쳐나며 전국적 우수사례로 많은 벤치마킹이 이루어 질 정도였으나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발맞추지 못해 외부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매출이 감소하여 이로 인해 야시장 내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 다양한 먹거리 부족 등으로 고객을 이끌 특징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상권활성화 TF팀’은 대끼리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운 여름에는 얼음관련 축제개최, 마약김밥, 월남 찜국수 등으로 꾸준히 찾는 음식으로 야시장 특화, 다문화 가족·실버 카페, 댄스동아리 페레이드 활동 고객유인, 벼룩시장 활용 등 다양한 메뉴와 서비스 개발로 먹거리와 문화·관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대끼리야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도록 상남시장 상인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시의회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향후 발전방향 논의 및 대안제시 등으로 전통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비교견학 실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이옥선)는 9. 28부터 2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고흥군을 방문하였다. 위원들은 대한민국이 우주로 가는 전초기지인 고흥우주발사 전망대와 우주관학관(우주센터), 이충무공의 발자취를 기록한 발포역사체험관, 국립소록도 병원 등을 견학하고 지역의 특정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교환 및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옥선 위원장은 “이번 현장 비교견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사업 등에 대한 사례 연구 등 창원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주남저수지, 로봇랜드 등 주요현장 방문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강호상)는 제60회 임시회 기간중인 5일 주요 사업 현장인 주남저수지와 로봇랜드 에서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주남저수지를 방문해 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생태·경관적 가치와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해 국내 최대 로봇산업 인프라가 구축되면 엄청난 고용창출과 생산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1?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공사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오는 8일 해양신도시 사업현장과 창원재활용선별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은 “향후에도 민원발생 예상지역과 주요 사업현장을 수시로 살펴 가며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시의원 재활용품 선별 현장체험 “눈길”



창원시는 최근 각종 포장재의 다양화로 분리배출 대상 재활용품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9월 한달간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성산구 소재 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에서 “2016 재활용품 선별현장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행사내용은 △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 견학 △ 재활용품 선별체험 △ 재활용품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 만들기 등이다. 창원시 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강호상) 시의원 10명과 길벗 유치원생 20명이 함께 8일 14시부터 2시간 동안 재활용품 선별 작업 체험을 했다.

이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발로 뛰는 의정 구현 실천을 위해 작업복 차림으로 수거된 스티로폼의 이물질 제거하고 감용기에 투입하여 생산된 잉코트(*스티로폼을 녹여 만든 덩어리) 정리작업을 했다.

또한, 수거된 스티로폼중에서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이 얼마만큼 혼합 배출되는지 등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스스로 일깨우고 정책 수립 자료도 수집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면 재활용품 판매수입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 소각 처리비용도 줄어 예산절감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시민들도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 생활화로 자원이 선 순환하는 창원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현장 방문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강호상)는 제60회 임시회 기간중 마산해양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9일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과정에서 나온 바다 밑 토사로 마산만을 메워 만든 인공섬을 신도시로 만드는 것으로, 전체 면적은 64만2천㎡, 둘레 길이는 3.15km에 달한다.

이날 위원회는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서항지구 친수공원과 돌섬 유원지, 어시장을 연계한 문화·관광·해양 레저 중심지구로 조성해 남해안의 중심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공매립 지역인 만큼 작은 실수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착실한 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제60회 임시회 기간동안 주남저수지, 마산로봇랜드 등 주요사업현장을 살폈으며,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주요 사업현장 방문



경남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희철)는 제60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5일 진해지역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제2안민터널 및 국도2호선(귀곡~행암) 대체우회도로 공사 현장,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 일원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2안민터널 및 귀곡~행암간 대체도로 건설 사업은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국가산업단지와 신항간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문화·관광·산업 등 사회전반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및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시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이 자리에서 이희철 위원장은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보상 문제 및 지역주민의 민원, 공사장 주변 안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으므로 관계기관에서는 주민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 주민 불편 없이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바란다.”라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비교 견학 실시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희철)는 9월 20일과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남해군 및 진주시를 방문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희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일정 첫날 남해군을 방문하여 지역내 관광유산 활용 방안 및 관광 접목 사례 등을 연구하여 창원시 관광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튿날은 진주시를 방문하여 남강유등축제 유료화 사례연구 및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축제 유료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 모색은 물론 위원 개개인의 전문습득과 역량 강화에 비중을 두어 견학을 실시했다” 고 밝혔다.

이희철 위원장은 “이번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비교견학을 통해 창원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례 등을 연구 하였으며, 또한 지역 축제 유료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창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수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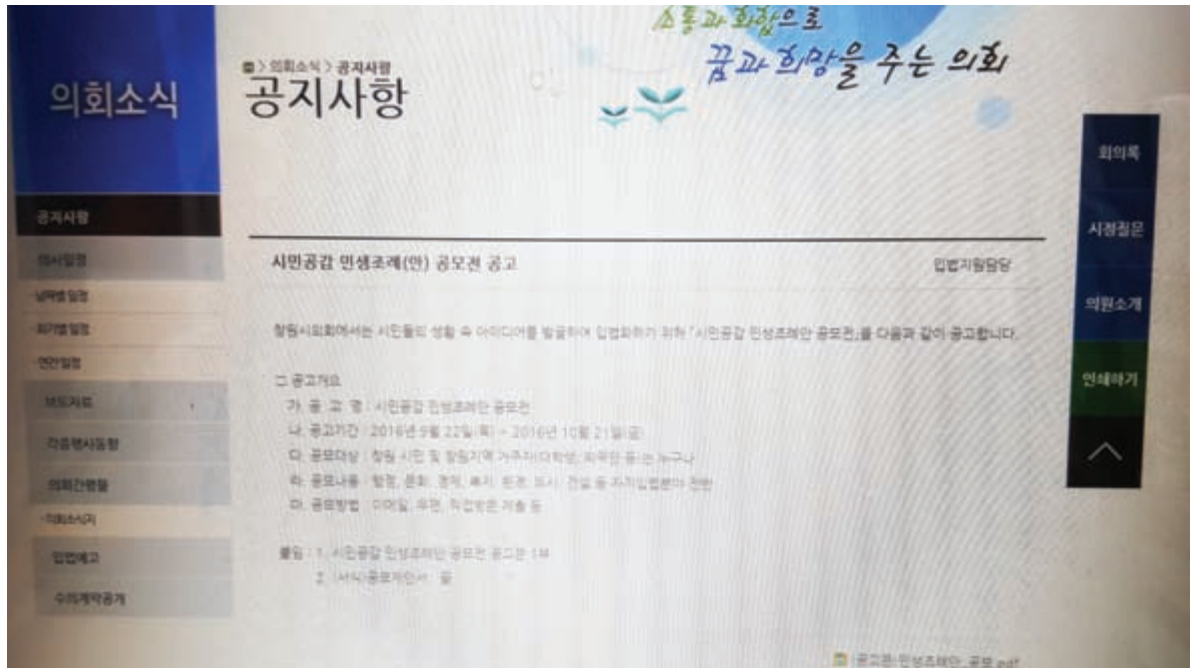


창원시의회(의장 김하용) 의원 및 직원 80여명은 9월 9일 제60회 임시회를 마치고 진해 용원 의창수협을 찾아 전어와 해산물로 가득한 만찬회를 가졌다. 이날 만찬회는 최근 경남, 통영에 이어 부산지역까지 발생한 콜레라의 원인이 수산물로 지목되자 급격한 매출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초가을 이맘때 제철을 맞은 전어는 뼈가 부드럽고 기름기가 많아 맛이 좋고, 특히 전어 중 최고의 맛으로 치는 떡전어는 진해만어귀에서 자라는 넓적한 전어로 거센 조류의 영향으로 근육질이 발달돼 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진해는 최초 콜레라가 발병된 거제와 인접한 바다이기에 이날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수산물 이용은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다.

창원시의회 김하용 의장은 “콜레라 발병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특수를 기대했던 수산물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다. 창원은 콜레라 청정구역으로 우리시 수산물은 안전하니 시민들과 관광객께서는 믿고 애용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 주관으로 시민 참여 조례 공모전 개최



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 (대표의원 노판식)가 시민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입법화하기 위해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공모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노판식)’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간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향후 선정된 아이디어를 의원 조례 입법 관련 연구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공모전』은 문화·경제·복지·환경 등 자치입법 전 분야에 관해 새로 도입하거나 일부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시민참여 입법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의 이번 공모전 참여를 위해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에 배너를 개설,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공모전 참여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좋은조례연구회 노판식 대표의원은 “이번 공모전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참신한 조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며 “좋은조례연구회에서 처음 계획한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공모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특히 정치인을 꿈꾸는 대학생과 청년층이 많이 응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청소년모의의회 진행교실 운영



창원시의회(의장 김하용)에서 창원반송여자중학교 학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모의의회 진행교실을 20일 개최 했다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한 청소년모의의회 진행교실은 참여 학교 및 학생의 호응이 높았다.

또한 이날 모의의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설립과 중고등학생 직업체험활동 의무화” 건을 놓고 각각의 역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시의원과 공무원이 되어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실제 와 동일한 과정으로 모의 본회의를 열어 제안설명 질의 답변 찬반토론, 표결을 거쳐 안건을 확정하는 과정등을 직접 체험하였다.

특히 김하용 의장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익혀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는 물론 나라를 이끌어갈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와 창원시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이 되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제61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 의회(의장 김하용)는 10월12일부터 10월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61회 창원시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 강화 촉구 결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0월 12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김하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태풍 차바로 인해 강풍과 폭우에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피해복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들에게도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비록 태풍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지만 10월에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는 만큼 10월의 문화예술 향연으로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임시회가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 시민 복리증진 조례 발굴 열중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노판식)는 12일 연구회 회원(노종래, 정영주, 이찬호, 이해련, 강영희, 김이근, 조영명, 배여진, 이민희, 김석규)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는 조례 발굴을 위해 연구회 활동을 이어 나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원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인권 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인권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제·개정 권고 이후 현재 90여개 자치단체에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운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는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이번 조례 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회에서는 타시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조례의 취지와 각 조항별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타시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조례 관련 실적, 현황 등에 대해 자료를 더 수집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회는 현재 창원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공모전”에 대해서도 21일까지 공모 접수기간에 많은 시민들이 참신한 내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무리한 좋은조례연구회는 앞으로도 조례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 누비자운영센터 등 방문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강호상)는 제61회 임시회 기간중인 14일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225만8692㎡에 34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단계 사업으로 2017년까지 골프장 36홀과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건설을, 2단계 사업으로 2018년까지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위원회는 공사진행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토사 반입과정에서 폐기물로 인한 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후 경륜공단내 누비자운영센터와 상남동 누비자중앙센터에서 누비자운영시스템과 누비자 정비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EV자동차 충전소에서 창원 시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을 보고받았다.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은 “향후에도 주요 사업현장을 수시로 살펴가며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상습 침수 및 피해복구현장 점검 실시



창원시의회(의장 김하용)에서는 지난 21일 의장단과 함께 상습 침수지역 및 태풍18호 “차바”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지난 태풍 18호 “차바” 로 인하여 강풍과 폭우로 농경지 유실, 주택가 침수등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후 해수면 최고 상승으로 상습침수가 있어 왔다.

이에 창원시 의회는 피해현장을 찾아 그 현황을 살펴보고 복구대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대안을 설명듣기 위하여 직접 현장으로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김하용 의장은 이 자리에서 “피해 시민들의 상심이 큰 만큼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며 “피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 고 주문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현장 확인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창원 마산항 제1부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의 성공을 염원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희철) 전 의원들은 ‘소망등’ 달기에 모두 동참하기로 하였다.

국화축제는 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직무로 지난 14일엔 국화축제준비장을 방문해 축제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시정의 핵심 전략이며 미래의 먹거리산업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 이희철 위원장은 “의회 소관 위원회에서도 시민들의 참여와 화합된 모습을 담아내는 소망등 달기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 대표축제에 대한 더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지역의 상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성공적인 ‘국화가 전하는 가을편지’를 모두가 받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시발전연구회 창원의 도시건축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순식)는 다음달 11월 9일(수) 오후4시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건축사회 도시환경연구회와 공동으로 ‘창원도시건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축과 도시라는 공간환경에서 바람직한 도시정책 조성을 위한 창원의 도시계획과 건축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토론회의 발제자는 조형규 창원대 교수와 류창현 건축사가, 토론자로는 창원시의회 이상인 의원과 김재덕 건축사가 나서서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추진하는 도시발전연구회 김순식 대표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를 계기로 창원의 도시계획과 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시민참여 조례 공모 심사



창원시의회는 27일 지난 한달간 공모한 시민참여조례 공모전 응모작에 대해 심사에 착수했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노판식) 주관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시민 참여와 공감을 통한 입법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접수된 제안 조례안은 좋은조례연구회의 1차 심사와 시의회에서 자체 구성한 심사·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제안의 창의성, 적용가능성, 노력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 후 선정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1차와 최종 심사를 통과해 우수 조례안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 오는 11월 의장상을 수여하고, 시민 공감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 조례안은 조례입법 관련 연구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좋은조례연구회는 “일반 시민이 접하기 어려운 분야임에도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며 “소중한 제안을 숙고해 공정하게 심사토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민생조례 연구 활동에 주력하겠다” 고 밝혔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대중교통 (시내버스) 관련 현안 청취



경남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희철)는 31일 문화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대중교통(시내버스) 관련 현안을 청취 받고,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폐회중인 이날 이희철 위원장과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및 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중교통(시내버스)과 관련해 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확인 하였으며, 소관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하여야 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하였다.

이희철 위원장은 대중교통(시내버스) 관련 현안을 청취하며 “우리 시 대중교통 서비스와 관련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므로, 시에서는 이번일을 계기로 우리 시 대중교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시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다.

창원시 의회 제62회 임시회 개최



창원시 의회(의장 김하용)는 11월8일부터 11월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6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게 된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1월8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일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김하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7일 막을 내린 제16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2016년 충무/화랑훈련 실시 등 한해의 마무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하반기 의정연찬회 참석 등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들에게도 감사 드린다” 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제62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하게 되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들은 예산편성과 지출계획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 을 당부하였다.

김의장은 “2016년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연초의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시기” 라며 “대·내외적으로 각종 자연적 재난과 경제적 위기 등 시련 속에서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해 국가적 위기를 원만히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고 강조하였다.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종래 의원” 부위원장에 “김우돌 의원” 선임



위원장 노 종 래



부위원장 김 우 돌

창원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종래 의원을, 부위원장은 김우돌 의원을 지난 11월 8일 각각 선임하였다.

예결특위는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박옥순(의회운영위), 김영미·노종래(기획행정위), 배여진·김재철(경제복지여성위), 이천수·김우돌(환경해양농림위), 박춘덕·황일두(문화도시건설위)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다.

노종래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결특위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 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 창원도시건축 정책토론회 개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순식)가 창원시건축사회 도시환경연구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창원도시건축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4시부터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축과 도시라는 공간환경에서 바람직한 도시정책 조성을 위한 창원의 도시 계획과 건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원, 건축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첫 발표자인 조형규 창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바람직한 도시정책 결정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후 창원시건축사회 류창현 교육홍보위원장이 ‘저성장시대의 도시건축 정책’이라는 주제로두번째 발표가 이어졌으며,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창원시의회 이상인 의원과 창원시건축사회 김재덕 도시환경연구위원이 참석하여 도시건축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과 문화자산으로의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도시발전연구회 김순식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창원의 바람직한 도시건축정책의 방향을 찾아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좋은조례연구회”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광주광역시 비교견학 실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노판식)는 지난 11월 16일 하루일정으로 광주광역시청 내 인권평화협력관실을 방문하여 인권관련 주요내용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비교견학은 좋은조례연구회에서 정례회 발의 예정인 인권조례의 질적 내실을 기하고자 인권도시로 유명한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인권 정책에 관한 주요내용을 견학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의 인권업무 전담부서인 인권평화협력관실에 들러 추진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청취하였으며, 인권정책협의회, 인권지표 설정, 옴부즈맨제도 등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다.

좋은조례연구회 노판식 대표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토대로 내실있는 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 관광문화 우수사례 비교견학 실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순식)가 22일부터 1박2일의 일정으로 관광문화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통영·거제시 비교견학에 나섰다.

연구회는 첫날 통영의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선생의 기념관을 비롯해 박경리 문학관, 거제시의 조선해양문화관, 대우조선해양 등 관광시설을 연이어 방문하였다.

23일에는 거제시 관광과를 방문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과 관광 인프라 구축 현황 등 거제시의 관광정책에 대해 청취하며 창원시의 관광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문학과 예술을 접목한 관광자원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도시발전연구회 김순식 대표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우리시 관광자원 연계에 도움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으며, 앞으로도 타시도의 좋은 도시발전 사례를 우리시 특색에 맞게 접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로컬푸드연구회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 로컬푸드연구회(대표의원 노창섭)는 11월 25일 소회의실에서 연구회 회원(김영미, 이치우, 김동수, 배옥숙, 주철우, 한은정, 이천수, 이옥선)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로컬푸드 5개년 계획 수립 등 창원시 로컬푸드 정책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올해 연구회 활동에 대한 마무리 평가를 실시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등 2017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로컬푸드연구회 2대 하반기 임원 구성으로 대표의원에 김동수 의원, 총무에 한은정 의원을 각각 선출한 연구회는 더 깊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창원시 로컬푸드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로컬푸드연구회 노창섭 대표의원은 “올해 연구회 활동에 대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다. 내년에는 새로운 임원진을 선두로 정례모임을 통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 써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 영 미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캄보디아 국제교육협력센터를 통해 창원 브랜드 높여야...

2016. 11. 10 창원시보 제153호 게재

‘어쿤~창원!(감사해요~ 창원)’

비지땀을 흘리며 공항에서 비포장도로를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캄보디아 따게오주의 ‘창원 국제교육협력센터’

굽은 주름이 가득한 검은 얼굴의 한 할머니가 다가와 함박웃음을 지으며 연신 고개를 숙인다. 꼭 잡는 두 손에 알아듣지는 못해도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습한 진흙 바닥에서 진행된 물품 전달식에 참석한 어느 여학생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창원시는 지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캄보디아 빈곤순위 24개주 중 6위인 따게오 주에 국제교육협력센터를 설립해 이 지역 학생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학교는 2014년 주정부로부터 정식 공립학교로 인가 받아, 공교육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더구나 올해는 웅남초등학교와 현동초등학교, 성원주상가와 창원시청 등 민·관·학이 협력해 재활용 물품과 ‘희망의 동전기부’ 저금통을 통해 성금을 모아 기증했으며, 이 성금으로 캄보디아 지역 도서관 및 우물 등을 관리하도록 지원했다.

우물 관리가 필요한 까닭은 NGO나 국제구호기구에 의해 우후죽순처럼 우물을 뚫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오염되고 각종 수인성 질병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UN의 지원을 받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가 총생산량(GDP)이 전 세계 11위에 속하는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없다. 경제적 성장을 이룬 만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하기 힘들다. 선진국이 되려면 이웃 국가와 ‘동반 성장’을 통해 21세기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UN은 ‘21세기 교육은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세계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교육우선 3대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세계 일류도시를 꿈꾸는 창원시가 캄보디아 국제교육협력센터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롭다.

하지만, 여전히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머물러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캄보디아 국제 원조 사업과 같이 적은 예산으로 아태지역까지 애민정책을 실천하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야말로 창원시가 주력해야 할 분야일 것이다.

‘국제교육협력 지원 사업’은 창원시가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으며, 우리 지역의 인재와 기업이 국제무대에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자.



이 상 인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시 주차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2016. 11. 25 창원시보 제154호 게재

창원시는 광역시 규모의 인구, 경제, 생태 및 환경, 생활양식, 공간구조 등으로 여러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분야가 바로 도심 주차난이다.

도심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운영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도심 주택가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정책 대안과 체계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없는 것은 물론, 주차수급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파악 정도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창원시가 광역시 위상에 걸맞은 대중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미래교통전문관을 채용하는 등 조직과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광역교통 환경구축을 선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제는 도시환경 중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분산되어 있는 주차장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도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선제적 주차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중심상권에 유동인구 집중을 완전히 분산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도시 거주자에게는 최소한의 주거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차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차장법’ 상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타 대도시권의 예를 살펴보면 주택가의 주차장 지역불균형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장 수급율이 낮아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특별관리 계획을 세워 주차환경을 확충하고 있다.

그동안 창원시의 주차난 해소 정책에도 지역별 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정책 의지 부족뿐만 아니라 지역별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인구는 늘지 않으나, 승용차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사실을 참고해 앞으로 주차수급 현황에 미리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자력으로는 재정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의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박 춘 덕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정부는 지진대비 예산 확보해야....

2016. 8. 25 창원시보 제148호 게재

경상도 사투리 중에 “니 땅 꺼지가 싶어서 우째 땡기노?” 라는 말이 있다. 걱정을 들어보라는 말이다. 9월12일 경주 남서쪽 8km지점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제는 땅 꺼진다는 말을 우습게만 여기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땅 밑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뒤 기상청의 브리핑이다. 뒤늦게 기상청장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수정은 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는 안심성 발언은 공포에 질린 영남권 시민의 심신을 치유하진 못했다.

국가재난방송 KBS에서는 드라마가 나왔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구분해 분열을 조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소외받은 서운함과 상실감은 크다. 지진통계가 시작된 1978년 이후 20년 단위로 나눠보면 규모 2.0 이상의 지진 발생 건수는 1978~1997년 403회, 1998~2016년 863회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만 총 발생 건수가 57회에 달해 관측사상 최고치다. 1978년 이후 우리나라에 규모 4.9 이상의 지진이 13회나 발생했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충남 내륙 경주와 울산에서 발생했다. 남서해안, 남해안, 남동부 해안은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빈발한 지역이다. 양산단층이 통과하는 경주 주변이 더 불안한 이유다.

울산을 비롯한 부산·경남·경북은 140km에 달하는 양산단층을 비롯해 크고 작은 단층대가 60여 개나 존재하며 지질학적으로 젊고 불안정한 신생대에 위치해 있다. 지난 7월5일의 규모 5.0 지진이 바다에서 발생했다면 9월에는 경주 내남 육상에서 발생했다. 해상과 육지를 가리지 않는다.

부산·경남·경북·경남지역은 활성단층대가 존재함을 이번 지진은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지진이 진앙의 깊이가 13km 내외일 정도로 깊어서 그나마 피해가 적은 듯 보이지만, 이 지진이 양산단층대의 활동지역이라면 창원에서 양산을 거쳐 포항으로 이어져 발견된 것 중 가장 크고 긴 단층대이기에 문제가 있다.

설혹 양산 단층대가 아닌 또 다른 단층대가 존재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월성핵발전소와 고리 핵발전소, 신고리핵발전소 모두 양산단층대에서 25km내외 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고 일광단층, 동래 단층, 울산단층대가 지근거리에 있어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다.

이제 우리는 지진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 확보와 행정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부의 국민안전처는 지진에 관련된 국민 대피요령을 각 주민센터로 직접 홍보, 주민이 직접 체험해 요령을 숙지케 하고 각 지자체별로 사후처방보다는 선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지금이라도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에 대비한 보강공사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저...지진피해 신고하려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것은 보상 리스트에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공직자의 답변이다. 또 한 번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기 전에 지진대응 선진국 일본을 능가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진대비 필요예산 확보에 주력할 때다.



우리동장님

박 춘 덕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언론사 게재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동(洞), 이(里), 포(浦), 평(坪), 촌(村), 향(鄉) 등의 이름으로 마을 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곳의 장을 동장, 이장, 구장(區長), 존위(尊位) 등으로 호칭했다.

일제 강점기 말에는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따온 정(町), 정목(丁目)을 단위로 정회(町會)를 두고, 임원으로 총대(總代) 1명 등을 두되 비상근으로 하고 유급의 서기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정상용 영천시 고경면장이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5개월가량 완산동장으로 재임 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일기로 쓴 ‘동장 일기’를 출간했다. 그가 쓴 이 일기에는 삶의 역동성이 꿈틀대는 완산동과 영천공설시장,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관계 및 그들의 가슴속에 담긴 사연 등이 구절구절마다 기록돼 있어 시장통의 치열한 삶의 표정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다.

이 책은 동장이 물 흐르듯이 동민들과 소통하고, 또 동민들에 대한 작은 배려가 자치행정 실현의 일차적인 요소임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동장은 일선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가족과 같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 자신이 맡은 지역의 풀 한 포기나 돌맹이 한 개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동장이라는 자리는 지역 출신의 덕망 높은 인사가 맡는 게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고, 또한 한 번 맡으면 그래도 최소한 2년 정도의 임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어! 동장님 아이가”라며 어르신이 부르면 달려가서 그분의 집안 대소사와 고민거리를 듣고 공감함을 표하고, 헤어질 때는 서로 허리 굽혀 인사를 나누던 그런 정이 넘치던 때가 그리워진다.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